

# “신재생에너지·AI 등 결합 통한 의료 산업화 필요”

**전남매일 제3기 CEO경제아카데미**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표준진료제 도입 소개  
2003년 사스 이후 닥친 코로나19 현주소 설명  
“바이러스 아닌 의료 산업 발전에 초점 맞춰야”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같은 질병은 계속해서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의료산업을 AI, 신재생에너지 등과 결합시켜 더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7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전남매일 제3기 CEO경제아카데미에서 ‘코로나 시대의 의료산업화’를 주제로 강의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의료 전달체계는 제한된 보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모든 국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제공 절차와 내용을

체계화하는 제도다.

세계보건기구는 의료의 지역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의료 전달체계 성립’으로 정의하고 지역의 의료로 진료권의 설정, 필요한 의료자원의 공급, 의료기관 간 기능의 분담과 연계 및 환자 이송 및 의료체계 성립을 든다.

김 전 장관은 “의료산업에서 의료전달체계는 서비스공급과 재원조달로 나뉜다. 자유기업형 의료전달체계를 적용한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 민간보험 등을 통해서만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그 값이 너무 비싼 것이 단점이다”며 “사회보장형 의료전달체계를 적용한 영국의 경우 모든



지난 27일 오후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아펠리아홀에서 열린 제3기 전남매일 CEO경제아카데미 강사로 초청된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코로나 시대의 의료 산업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의료 서비스가 국가예산을 통한 공공의료에 해당해 환자 수에 비해 의사 수가 너무 없거나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아픈 환자가 의사를 만나거나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양 국가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공급체계는 자유기업형으로

85%는 민간의료에 맡기고, 재원 조달체계는 사회보장형으로 나머지 15%는 건강보험이나 심사평가원에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 정책이 잘 적용된 것은 아니다.

김 전 장관은 “의료 서비스의 85%를 민간 의료원에 맡기니 의사들이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재임 시절 표준진료제

를 도입, 심사평가원의 병원 심사를 도입해 과다진료를 하는 병원의 10%를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환자들의 적절한 의료 서비스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회상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관 재임 당시 사스가 발생했었다. 그 당시 사스에 감염된 중국인 6,000 명이 비행기, 배를 통해 매일 입국했다. 그

당시 확산을 막기 위해 비행기에서 내린 이들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행선지를 다 적게 하고 2주간 격리하게 하는 등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은 발전하고 있으나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똑같은 농사라도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등 각종 IT, AI 등 발전하는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는 등 의료 산업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ESG, AI 등을 도입해 계속해서 새로운 진단기기, 약, 진단 기기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만큼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고 이뿐만 다른 바이러스로 계속해서 변이하며 우리 삶에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결국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나 동물과 같은 숙주가 있는 이상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존재한다. 이제는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AI, 신재생에너지 등을 도입해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 산단공 광주지역본부, 비즈포럼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 이하 산단공 광주지역본부)는 28일 공단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참여기업에 대상으로 공공 기술 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

즈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 광(光) 변환 소재 응용 기술’ 등 한국광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6개 이전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기술상담이 이뤄졌으며, 100여명의 회원사가 참여해 기술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황상현 광주지역본부장은 “공공기술이 전이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 중 하나인 만큼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촉진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 한국광기술원, 스마트 소변검사 기술개발 성공

고가 수입제품 대체·전처리 과정 없어 편리

한국광기술원(원장 신용진)은 소변에 시약을 떨어뜨려 나온 빛의 세기를 측정하여 나트륨/칼륨(Na/K) 함량과 비율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소변검사 기술개발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한 고혈압, 당뇨, 신장·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저염식 섭취가 필요함에 따라 평소 체내에 있는 나트륨·칼륨 양과 비율 관리가 중요

하다. 그러나 현재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검사 장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가의 제품들로 검사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검사과정도 복잡해 일반인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한국광기술원 광의료바이오연구센터 김기현 박사팀은 미세유체 칩(Microfluidic Chip) 내 나트륨과 칼륨

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aptamer(Aptamer)를 이용, 소량의 시약에 소변을 떨어뜨려 발생하는 펄토 와트(Femto Watt) 급 수준의 미세한 빛의 세기를 측정해 나트륨·칼륨의 함량과 비율을 정확하게 계속·진단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까다로운 소변의 전처리 과정이 없어 일반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신호처리 기술을 적용, 수분 이내로 측정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오지현 기자

## 광주축산농협 화재예방활동 조합원 농가에 소화기 지원

광주축산농협은 화재예방과 조합원 실익사업과 환원사업 일환으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2주 동안 750여명의 소화기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사진> 이번 축산농가 소화기 지원은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까지 조합원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화재 예방활동에 나선 것이다.

광주축협 김호상 조합장은 “건조한 가을을 맞아 화재에 취약한 축산 농가의 재해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당장은 빛을 발하지 못 할 수도 있지만,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통해 조합원의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최소화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 조명서비스 산업발전 힘 모은다

광기술원, 관계기관 업무협약

한국광기술원(원장 신용진)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이사장 강영식),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복덕),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회장 오순기)와 광융합 조명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융합 조명서비스 산업 전반의 진흥을 도모하고,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능력 제고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모델방문 고객경험관리 인공지능 서비스디자인사업’을 수행하고 있

는 한국광기술원과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는 관련 산업분야 협동조합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광융합 조명서비스 산업 보급·활성화 ▲세미나, 심포지엄, 연구발표회 개최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정보교류 및 연구시설·장비 상호 이용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을 위한 제반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지현 기자

## 광주상의, ‘광주·전남 발전 프로젝트 공모전’ 연장

내달 11일까지 접수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전남 발전 프로젝트 공모전’ 접수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전남 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산업구조

에 대응하고 광주·전남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전남 지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주제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서미애 기자

구체적으로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개발 프로젝트 ▲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혁신적인 프로젝트 ▲청년·여성·중장년·실버세대 등의 혁신적인 고용 창출 프로젝트 ▲기존 산업 간 융합 또는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등 과 관련된 주제들이 포함된다. /서미애 기자